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리듬의 원리와 그 적용

정 재 은*

달크로즈 교수법의 교육적인 주요원리들과 한국음악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음악경험을 통한 음악성 발달과 창의력 신장 등-이 일치하는 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크로즈 교수법이 학교교육에서의 실제 음악시간에 적용되어진 예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가 아닌 단순한 활동만이 적용되었음을 부분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원리를 살펴보고, 그 원리들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소재를 탐색하고, 이를 실제로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과 지도안을 제시하려한다.

※ 주제어: 달크로즈, 리듬, 유리드믹스, 학습지도안, 교수-학습 모형

차 례

I. 서 론

1.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원리
2.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II.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리듬과 그 적용

1. 리듬의 정의
2. 리듬의 34가지 요소들과 활동에의 적용
3. 리듬외의 음악개념들

III. 달크로즈 교수법의 실제 활용

1. 초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모형
2. 학습 지도안의 예

IV. 결 론

* 경인교육대학교 강사

I. 서 론

동작과 음악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할 때 달크로즈(E. Jaques-Dalcroze, 1865-1950)를 빼놓을 수는 없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사업가였던 아버지와 페스탈로치 철학을 연구한 교사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비엔나에서 태어나고 스위스에서 자란 그는 배우로 음악가로 훈련되어졌다. 달크로즈는 또한 피아니스트, 지휘자, 가수, 작곡가, 그리고 시인으로서의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달크로즈는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순회하며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였으며 북아프리카에서의 다양한 리듬의 경험이 후에 그의 교수법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소리와 복합리듬의 세계를 소개시켜주었다.

달크로즈는 제네바 컨서바토리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1892) 화성학과 솔페이즈 교육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연주의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만의 리듬 활동(Rhythmic gymnastics)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는 기술적으로 연주를 잘 하더라도 학생들이 음악을 그들의 감정으로 표현 할 수 없다면 음악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달크로즈는 그것을 해결하고자 유리드믹스, 솔페이즈, 즉흥연주의 3대 영역을 연계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을 창안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달크로즈 교수법은 일반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음악, 무용, 드라마, 그리고 오페라 심지어는 정신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치료에까지 다양하게 응용되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어지는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원리는 무엇일까?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음악교육에 있어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일까? 달크로즈 교수법의 음악적인 소재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또한 달크로즈 교수법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원리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나열하고, 주요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들을 정의한다. 둘째,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소재인 리듬과 실제로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리듬의 34요소를 밝히고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실제 움직임들을 소개한다. 셋째, 리

듬 이외의 음악의 개념들 - 가락, 화성 등 - 을 어떻게 움직임과 연결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실제 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달크로즈 교수법을 기초로 한 교수-학습 모형과 지도안을 제시하려 한다.

1.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원리

달크로즈는 음악적 리듬의 인식은 신체 내에서 동적감각(motor sensations)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Dalcroze, 1921). 이 개념을 통해서, 그는 리드믹 움직임, 청음훈련, 그리고 즉흥훈련을 조합하는 교수법적인 아이디어를 명확히 표현했다. 리드믹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유리드믹스는 신체를 음악적 요소들—특히 리듬과 강약—의 표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학습활동이다. 솔페이즈는 청음훈련으로서 음악적 요소들—특히 음높이, 가락과 화성—을 귀, 눈, 목소리를 통하여 훈련하는 것이다. 즉흥연주는 이 모든 것을 학생 스스로의 발견에 의해서 움직임으로, 목소리를 가지고 혹은 악기를 통하여 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달크로즈 교수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음악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든 감각들을 발달, 개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청각, 시각, 촉각 등의 감각과 앞과 사고의 능력, 그리고 감정을 느끼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들을 발달, 개선하는 것이며 이런 모든 능력을 조화시키는 것이 근육운동감각이라고 본다. 또한, 이러한 근육운동감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목적이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덧붙이자면, 달크로즈 교수법은 보이지 않는 소리(invisible sound)를 보이는 소리로(visible sound)로 소리모방(Phonomimesis)을 통하여 연계시킬 수 있게 훈련하는 과정이며 이를 유리드믹스, 솔페이즈, 즉흥연주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을 주된 원리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원리를 아로노프(F. W. Aronoff)는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신체움직임의 시간-공간-에너지의 관계는 사고와 감정이 관련이 되어 있는 음악적 표현에서의 대응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역시 움직임=소리

로 되는 원리를 강조하며, 둘째로는 음악성은 부단히 날카로운 청각적 지각과 상상력을 연결시키는 신체동작을 함으로써 장려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근육운동감각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세 번째로는 즐겁고 만족스러운 경험은 음악적인 요소들의 조작과 증가된 감각을 이끌어주면서 이들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보다는 경험이 앞서야 한다는 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Aronoff, 1969). 이어서 달크로즈 교수법에 사용되는 개념의 정의를 통하여 교수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2. 관련용어들의 개념 정의

달크로즈 교수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로 알아야 할 주요개념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근육운동감각, 소리모방, 내청, 종합감각, 따라 하기, 빨리 반응하기, 메아리 모방, 연속 모방, 유동성.

먼저 근육운동감각(*Kinesthesia*)이란 움직임을 뜻하는 Kine(motion)과 감각을 뜻하는 Aesthesia(sense)가 결합된 개념으로 고도로 훈련된 예술가나 운동선수에게서 뚜렷한 인간의 오감(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외의 여섯 번째의 감각으로 신체와 감각, 그리고 뇌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조직체계라 불릴 수 있다. 이런 근육운동감각은 세 가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무의식(Unconscious), 의식(Conscious), 조상(Imaginary)이 그것이다. 무의식은 자동적인 움직임으로써 걷기, 숨쉬기, 일어서기 같은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소뇌의 활동이 그 주가 된다. 의식은 사고와 함께하는 움직임으로써 얼음위에서 걷기, 어두운 방에서 움직이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와 같은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대뇌의 활동이 그 주가 된다. 마지막으로 조상은 신체적인 움직임이 없이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활동으로써 악기 없이 연주 생각하기, 침대에서 누운 채로 체조의 순서를 생각하기 등의 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전체적인 뇌의 활동을 필요로 한다.

소리모방(*Phonomimesis*)은 소리를 뜻하는 Phono(sound)와 동작의 모방을

뜻하는 Minesis(movement imitation) 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리와 움직임, 움직임과 소리사이의 관계는 소리모방이라고 불리며 이것은 모든 음악적인 기술의 기초를 이룬다. 소리모방은 구체적인 소리가 적절한 동작이나 제스처로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곳에서 소리와 움직임사이의 동등한 연결을 만든다.

내청(*Inner Hearing*)은 달크로즈 교수법을 통하여 학습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써 외청(*Listening*)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청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머릿속으로 재생성을 통해 마음속으로 듣는 것이다.

종합감각(*Synesthesia*)이란 정보를 모으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6가지의 감각(청각, 후각, 시각, 촉각, 미각, 근육운동감각)을 조합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건반을 누르면서(촉각) 소리를 듣고(청각) 악보를 보는 것(시각) 이다.

따라 하기(*Follow*)는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들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게임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학생들이 즉흥으로 연주된 박 이나 패턴을 정확히 모방 혹은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교사가 북으로 박을 연주할 때, 학생들이 그 박을 따라 걷는 것, 혹은 교사가 북의 북판을 때리면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서서 박을 박수로 따라서 치는 것 등이 있다. 게임의 또 다른 활동으로 빨리 반응하기가 있다. 빨리 반응하기(*Quick Reaction*)는 학생들이 주어진 신호에 따라서 바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호는 말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악기로, 혹은 다른 다양한 소리로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을 보고 걷다가 일정한 신호가 들리면 뒤로 돌아서 걷는 것을 즉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메아리모방(*Interrupted Canon*)은 교사가 다양한 리듬패턴을 일정한 박자를 가지고 즉흥연주하면 학생은 각 음악의 연주 후에 메아리처럼 따라하고, 또 다시 교사가 연주하고 학생이 따라하는 것으로써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지는 모든 음악적인 요소들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속모방(*Continuous Canon*)은 음악적으로 따라한다는 점에서는 메아리 모방과 비슷하지만 간격 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일정한 길이의 쉽이 있는 주고받는 형태의 메아리 모방과는 다르게 연속모방은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계속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가 다양한 리듬패턴을 연주할 때 일정한 시간의 간격을 가지고, 흔히 한마디이지만, 학생들이 그 패턴을 계속해서 따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동성(*Plasticity*)은 마치 진흙으로 물체를 만들듯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학습에서 다루어지는 개념들과 비교해 볼 때 위에 제시된 달크로즈 교수법과 관련된 개념들은 주로 동작과 소리의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 그리고 활동과 연관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Ⅱ. 달크로즈 교수법에서의 리듬과 그 적용

1. 리듬의 정의

달크로즈는 *리드믹 솔페이즈(Rhythmic Solfege)*의 서문에서 리듬을 근육과 신경체계의 본질적인 성질이고, 앞으로 나가려는 힘과 멈춰있으려는 힘의 중간점 같으며, 리듬은 흔히 평형상태를 바꾸거나 혹은 평형상태를 잃어버린다고 설명한다. 덧붙여서 리듬을 익히려면 지적, 감각적, 감정적 단계의 리듬적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특수한 신체적인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서술한다. 달크로즈가 그의 저서에서 정의한 리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리듬은 움직임이다.
2. 리듬은 근본적으로 신체적이다.
3. 모든 움직임은 시간과 공간과 연관되어있다.
4. 음악적 자각은 신체적 경험의 결과이다.

5. 완벽한 신체적인 자각은 명백한 정신적인 지각을 이끌어낸다.
6. 시간 내에서의 완벽한 움직임은 의식적인 음악적인 리듬을 보장한다.
7. 공간 내에서의 완벽한 움직임은 의식적인 유동성의 리듬을 보장한다.
8. 시간과 공간 내에서의 완벽한 움직임은 오로지 리드미한 움직임의 연습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질 수 있다(Dalcroze, 1921).

위의 리듬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달크로즈의 이론에서 리듬은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길고 짧은 음의 시간적 구성이 아니라 시간-공간-힘의 문맥에서 존재하는 리듬을 의미한다. 리듬의 정의 자체에 달크로즈의 핵심인 움직임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리듬은 어떤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이 같이 작용하고(예를 들면, 박이나 박의 세분),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대조되어진다(당김음과 복합리듬). 또한 달크로즈는 리듬의 또 한 가지 필수적인 힘이 현재의 일상을 표현하는 힘이라고 정의하였고 모든 리듬의 소재는 일상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달크로즈의 아이디어의 분석을 통해서 아브람슨은 리듬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불규칙리듬(Arrhythmia), 박절리듬(Errhythmia), 그리고 좋은 리듬(Eurhythmia)이 그것이다(Chosky&Abramson, 1986). 불규칙리듬은 피이한 타이밍과 규칙적인 흐름이 부족한 경련환자의 움직임에서 볼 수 있는 리듬이다. 예를 들면, 체조를 할 때 음악에 맞게 움직이지 못하고 엇나가게 움직이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규칙적인 흐름이 없는 것이 불규칙 리듬이다. 박절리듬은 규칙적이고 바른, 동작에서의 기계적인 리듬으로 흐름은 거의 없고 생동감이 없다. 시계추의 일정하게 움직이는 리듬, 혹은 기계의 움직임이라고 예를 들 수 있다. 좋은 리듬은 올바른 시간과 아름답고 다양한 흐름을 가진 움직임에서의 표현적이고 생동적인 것이다.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추구하는 시간, 공간, 에너지를 모두 표현하는 리듬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4/4박자를 지휘할 때 4박자를 불규칙하게

지휘하는 것(불규칙리듬), 박에만 정확히 맞게 지휘하는 것(규칙리듬), 박의 흐름-크루식, 메타 크루식, 아나크루식-을 표현하면서 지휘하는 것(좋은 리듬)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다. 물론, 달크로즈에서 추구하는 리듬은 좋은 리듬으로 생동감 있는, 다양한 음악의 흐름을 표현하는 리듬이다

이와 같이 리듬이 중심요소가 되는, 소리와 동작의 연계성을 강조한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강조되는 두 가지 선행요건이 있다. 첫 번째는 경험을 통한 학습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개인적인 음악적인 경험을 통해서, 음악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실제 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음악적인 개념들은 무엇이 있으며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경험이 되어 질 수 있을까?

2. 리듬의 34가지 요소들과 활동에의 적용

달크로즈 교수법을 다루는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리듬의 34가지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리듬의 34요소가 무엇이라는 것만 대략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을 뿐, 그것이 왜 중요하고 실제로 무슨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리듬의 요소를 정의하고 실제 예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 알려져 있는 달크로즈 교수법에 관한 지식들은 달크로즈 교수법의 대가중의 한명인 아브람슨의 이론으로 지나치게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때문에, 그 외의 달크로즈 교수법의 대가들, 예를 들면, 아로노프, 겔(H. Gell.), 미드(V. Mead)의 의견들을 반영하려 한다.

로버트 아브람슨은 달크로즈가 제시한 34가지 리듬의 요소들을 정리하고 실제 학생들을 지도할 때의 제언들을 구체화하였다. 이들 요소의 순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제시된 리듬의 요소들을 유리드믹스, 솔페이즈, 즉흥연주라는 활동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훈련되어질 수 있다. 이런 리듬의 요소들이 연습되어지기 전에 근육운동감각을 동반한 리드믹한 움직임과 단순한 움직임과는 구별

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칠 때 그냥 단순히, 아무런 준비 없이 박을 치는 것은 리드미한 동작이 아니다. 먼저 박수를 칠 준비를 하고, 박수를 치고, 리듬의 지속을 박수를 치는 손의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다시 다음 박수를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준비-치기-지속-준비로 복귀하는 단계를 거칠 때 비로소 리드미한 동작이 되는 것이다.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는 리듬의 34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시간 공간 힘 무게 균형 유동성/중력, 2) 규칙적인 박, 3) 빠르기, 4) 변화하는 빠르기, 5) 강약, 6) 변화하는 강약, 7) 악상, 8) 악센트에서 나타나는 리듬, 9) 마디에서 오는 리듬, 10) 쉼, 11) 지속, 12) 세분, 13) 패턴, 14) 고유의 박, 15) 악절, 16) 단선율 형식, 17) 축소, 18) 확장, 19) 리듬적 대위법, 20) 싱크페이션, 21) 반주가 있는 단선율, 22) 대위적 형식, 23) 카논, 24) 푸가, 25) 부가 리듬, 26) 혼합 박자, 27) 혼합 박, 28) 혼합 마디와 혼합 박, 29) 복합 박자, 30) 복합 리듬, 31) 해미올라, 32) 리듬적 변화, 33) 12음 나누기, 34) 루바토.

음악학습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각각의 요소들이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수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각각의 요소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서술하고, 각각의 요소들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동작들의 예와,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표 1>을 통해 제시하였다.

<표 1> 리듬의 34가지 요소와 그 적용

리듬의 요소	중심 학습 내용	지도방법과 내용
1. 시간+공간 +힘+무게+ 균형+유동성/ 중력	이들 각각의 요소들을 각각 다른 양으로 적용 하는 것이 리드믹한 호 름과 리드믹한 표현의 유연성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리듬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주요 요소인 시간, 공 간, 그리고 힘을 느낄 수 있는 움직임의 예를 들 어보면 다음과 같다. 시간을 탐색하는 움직임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리고 작게 웅크려본다. -그 다음에 매우 천천히 할 수 있는 한 느리게, 그리고 크게 일어나본다. -다시 빨리 웅크려본다. 공간을 탐색하는 움직임 -서로 부딪치지 않게 안으로 바깥으로 뛰어본 다 -한 줄로 서서 걸어본다. -마루에 커다란 원을 그려본다. -머리위로 원을 그려본다. -옆쪽으로는나 뒤쪽으로 원을 그려본다. 에너지를 탐색하는 움직임 -바닥에서 쿵 하고 뛰어본다. 앞으로, 뒤로, 옆 으로, 원으로 쿵 하고 뛰어본다. -발끝을 들고 할 수 있는 한 가볍게 발끝을 거 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안으로 밖으로 빠르게 해본다. -한쪽 다리를 들어올린다. 들어 올린 다리를 바 닥을 향해 매우 느리고 무겁게 눌러본다. -다른 쪽 다리를 들어올린다. 들어 올린 다리를 바닥을 향해 매우 느리고 무겁게 눌러본다. -다리를 바닥으로 천천히 무겁게 누르면서 할 수 있는 한 무겁게 걸어본다.
2. 규칙적인 박	박의 성질은 3가지가 있 는데 이것은 인간의 호 흡과 비교될 수 있다. 숨 을 들이쉬는 것(아나크 루식), 숨을 참는 것(메 타크루식), 그리고 숨을 내쉬는 것(크루식) 이 그 3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박의 성질 들은 유리드믹스 수업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한 다.	좀 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크루시스는 때려지는 순간, 내려떨어지는 순간이다. 모든 마디의 첫박 에서 발생하고 방향은 아래로 에너지는 풀어지 는 것이다. 메타크루시스는 중간 박에서 발생하 는데 다시 뛰면서 쪽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박자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이에 속 한다. 방향은 수평적이고, 대각선으로, 그리고 에너지는 뛰어 되돌아오는 것이다. 아나크루시 스는 다시 때리기 위한 준비이며 올라가는 박이 다. 마디의 끝 박에, 다음 크루시스로 가시 바로 직전에 발생한다. 방향은 위로 향하고 에너지는 힘을 모으는 것이다. 박자를 지휘해보면 에너지 와 방향을 느낄 수 있다.

리듬의 요소	중심 학습 내용	지도방법과 내용
3. 빠르기	모든 다양한 빠르기는 신체동작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고 반응이 되어야 한다.	느리게를 경험할 수 있는 곡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코끼리”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Eb 장조 2악장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아라비안 댄스”동작으로서의 적용과 활용
4. 변화하는 빠르기	본래빠르기를 기억하는 것과 점점 빠르게와 점점 느리게 다음에 본래 빠르기로 다시 돌아가는 능력은 빠르기의 변화를 연습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원래 템포를 기억하는 것이다.	동작에서는 스텝의 크기나 다른 움직임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를 느낄 수 있는 곡의 예는 다음과 같다. 빠르기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곡들 -그리그, 페르귤트 모음곡 중, in the hall of the mountain king, Op.46, No.1 (느리다 점점 빨라짐) -쇼팽, “즉흥 환상곡” Op.66 (빠름-느림-빠름) -무소르르스키, 전람회의 그림 중 “시무엘 골드베르크와 시밀레” (느림-빠름-느림)
5. 강약	이것은 모든 단계에서의 에너지와 중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리듬의 통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신체동작은 다른 종류의 강약을 반영해야 한다.	“야” 소리를 가장 작은 소리부터 가장 큰 소리까지 네 단계로 나눈 뒤 1부터 4까지 번호를 붙인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1을 소리 낸 후 4를 소리 내 보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계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6. 변화 하는 강약	강약의 음영을 연습함으로 해서 신체적인 행동을 자극하거나 내재하는 능력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위에서 붙여진 번호를 순서대로 소리 내 본다. 1부터 4까지의 점점 세계와 4부터 1까지의 점점 여러계를 경험할 수 있다.
7. 악상	일곱 번째는 아티큐레이션이다. 다른 아티큐레이션의 표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의 다른 부분들이 탐구되어야 한다.	동작들과 연결된 음악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미끄러지기(glide) = 레가토 가볍게 두드리기(dab) = 포르타토, 포르타멘토, 세미-스타카토 찰싹 때리기(flick) = 장식음, 스타카토 뜨기(float) = 매우 부드럽게 지속되는 레가토 주먹으로 치기(punch) = 낮은 음역에서의 포르티시모 악센트 때리기(slap) = 높은 음역에서의 스포르칸도 악상은 움직임을 시작하거나, 연결 중지하는 다양한 방법과 부분을 탐색해야 한다.

리듬의 요소	중심 학습 내용	지도방법과 내용
8. 악센트에서 나타나는 리듬	다양한 형태의 악센트를 적용함에 따라서 리듬의 색채가 영향을 받는다.	악센트의 종류도 박자의 아고지크, 다이내믹, 조성의, 장식적인, 화성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이내믹 악센트는 흔히 있지 않은 강세이다. 예를 들면 테누토, 스포르찬도 같은 것. 어떤 음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게 장식적인 악센트로 트릴이나, 전타음이 이에 속할 수 있다. 화성적인 악센트는 화음의 불협화음에 의해서 만들어 질 때 생성된다. 자유롭게 건다가 교사의 악센트를 뜻하는 명령어나 의성어에 따라 방향을 바꾸거나, 점프를 하거나, 조각상처럼 멈춘다.
9. 마디에서 오는 리듬	단순박자에서의 박은 흔히 똑바로 움직이는 신체의 부분을 가지고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복합박자의 표현은 곡선으로 표현된다.	팔꿈치 굽히기, 무릎 접었다 피기를 통해 단순박자를 경험할 수 있고, 팔이나 몸통을 양옆으로 흔들어봄으로써 복합박자를 경험해 볼 수 있다.
10. 쉼	셈표에서 가장 중요한 조점은 바깥으로 움직이려는 움직임을 자제할 때 박을 마음속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4박에 맞추어서 건다가 멈춰 서서 4번 박수를 치고 다시 반복한다. 이를 통해서 셈표는 소리는 나지 않지만 길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11. 지속	타이핑과는 다르게, 에너지나 무게의질이 소리가 길어질수록 증가해야 한다.	미적인 경험을 하려면, 질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길이의 표현이 이루어져야한다.
12. 세분	속도를 바꿀 때 움직임의 질을 바꿀 때 경험되어지는 첫 번째가 세분이다. 속도뿐 아니라, lift(올림), weight(중력), 그리고 momentum(운동량)이 함께 경험되어야 한다.	어떤 박의 분할도 빠르고 원만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며 이는 움직임을 속도와 질을 바꾸는 연습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다. 도-도를 돌로, 다시 셋으로 나누는 연습
13. 패턴	패턴의 경험은 리듬요소들의 구성과 적용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눈에 보이는 사물을 이용해서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의자-책상-지우개-문 이라는 사물을 읽고 그 음절들을 반복함으로 해서 그에 해당하는 음가의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

리듬의 요소	중심 학습 내용	지도방법과 내용
14. 공유의 박	패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박으로써, 복잡한 패턴 속에는 내재되어 있는 박이 있고, 이의 경험은 박과 박자의 상호 작용은 느끼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필수적이다.	2박, 3박, 4박을 느낄 수 있는 곡을 들으면서 지휘를 해 본다.
15. 악절	다른 형태의 프레이징이 움직임을 통해서 경험되어야 한다.	허공에 프레이즈를 그려보기 패턴은 쉼표, 악센트, 길이를 통해 생긴 종지를 통해 생성된 악절로 향하여진다. 규칙적인/불규칙적인 악절이 학습되어진다. 다른 종류의 프레이즈 시작은 동작의 연속성에 영향을 준다.
16. 단선율 형식	(동기, 악구, 악절, 주제, 주제와 변주, 노래와 춤 곡의 형식들) 음악을 공부하기 전에 움직임을 통해서 형식이 학습되어야 한다.	움직임의 연습을 통해서 2마디가 악구가 되고 악절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다양성과 통일성을 갖춘 두 도막, 세도막형식의 경험으로 이어진다.
17. 축소	음가의 축소의 효과를 발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신체동작을 두 배, 세 배로 빠르게 연습해본다.	걷다가 뛰는 움직임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고 도-도 음계를 이용하여 축소하는 연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18. 확대	음가의 확대의 효과를 발견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신체동작을 두 배, 세 배로 느리게 연습해 본다.	걷다가 뛰는 움직임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고 도-도 음계를 이용하면 확대하는 연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19. 리듬적 대위법	그들의 개인적인 질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상호 작용들을 통해 생긴 새로운 질을 표현하면서 두개나 그 이상의 다른 패턴들을 동시에 연주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학습이다.	가장 단순한 연습은 학생들이 하나의 패턴을 유지하고 교사가 다른 패턴을 연주하는 것이다. 2,3,4그룹으로 발전시킨다. 가장 어려운 연습은 말이나, 노래하면서, 박수로 대위선율을 연주하고 걷거나, 타악기로 반주하는 활동들을 결합하는 것이다.
20. 싱크레이션	지체되거나 미리 나오는 것에 의한 당김음은 보통 박질의 악센트 사이의 불일치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시작하는 패턴으로 묘사될 수 있다.	한손으로 박자를 저으며 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말을 만들어서 넣어본다.

리듬의 요소	중심 학습 내용	지도방법과 내용
21. 반주가 있는 단성부	이것은 다양한 대위법적 반주를 지닌 혹은 오스티나토에 의해 만들어진 단순 대위법에 의한 움직임들을 통한 다른 형식들 론도, 악절, 악구를 학습하는 매우 진보적인 것이다.	하나의 그룹이 똑같은 발의 움직임을 계속하고(왼발-오른발을 번갈아서 구른다) 다른 그룹은 팔을 이용하여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 본다.
22. 대위적 형식	(겹쳐진 오스티나토, 변주를 가진 오스티나토 반주, 샤콘느, 파사칼리아, 중세와 바로크 무곡의 변주,) 이런 형식들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즉각적인 움직임을 연주한다.	즉흥연주를 통하여 다양한 대위적 형식들을 동작으로 표현한다.
23. 카논	(메아리, 연속적인) 다양한 종류의 움직임을 통해서 메아리캐논과 연속적인 캐논이 연주될 수 있다.	일정한 리듬꼴의 연습을 메아리모방과 연속적인 모방으로 연습해 본다. 먼저 말로, 박수로 모방하는 연습을 해 본 후 익숙해지면 말-박수-발 구르기 순으로 덧붙여본다.
24. 푸가	학생들은 자유로운 리듬으로 움직이는 대위법적인 에피소드를 가진 엄격한 캐논적인 움직임의 모방을 통해서 푸가로 움직인다.	푸가의 기본요소인 주제, 응답, 에피소드의 관계를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해 본다.
25. 보충 리듬	움직임의 공간의 크기에 따른 길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연습들 안에서 원래의 리듬패턴은 한성부는 신체부분으로 연주되고, 보충적인 패턴은 목소리나 다른 신체부분에 의해서 연주될 수 있다.
26. 혼합 마디	이 학습은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동유럽의 춤과 노래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스타일로의 접근을 제공한다.	연속적인 강세가 있거나 강세가 없는 박 사이의 차이점을 연주하고 지각하는 빨리 반응하기 게임을 하면서 이 학습을 준비한 후에, 균등하지 않은 마디는 그런 연속을 단계적으로 섞는 것에 의해 경험되어질 수 있다.
27. 혼합 박	첨가에 의한 길이의 본래 연습과 대치에 의한 변화의 연습은 균등하지 않은 박의 경험을 도와준다.	첨가에 의한 길이의 본래 연습과 대치에 의한 변화의 연습은 균등하지 않은 박의 경험을 도와준다. 이런 혼합박 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음악에서 흔하고 북아메리카, 중동, 캐리비안과 미국재즈에서도 발견된다.

리듬의 요소	중심 학습 내용	지도방법과 내용
28. 혼합 마디와 혼합 박	26번과 27번 요소의 결합이다.	위에서 제시한 두 리듬 요소들의 결합은 먼 동부와-특히 인디아- 그리고 서양현대음악에 존재한다.
29. 복합 박자	복합박자는 두 가지 박자가 동시에 결합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엇갈리는 강세의 패턴들을 만들어낸다	베토벤 교향곡 3번(영웅)의 첫 번째 악장 한 팔로는 2박자 지휘를, 다른 팔로는 3박자를 지휘하는 연습을 한다. 익숙해지면 다리는 12/8 박으로 걷는 연습을 양팔의 지휘와 함께한다.
30. 복합 리듬	2대 3, 3대 2 그리고 등등은 두개의 다른 빠르기에서의 직접적인 단순 박자와 간접적인 박자의 패턴이 동시에 발생할 때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상체와 하체 사이의 복합리듬을 무의식적으로 연주한다. (공을 튀기면서 걷기, 꽃을 따는 중에 걷기)
31. 해미올라	이것은 매트릭스와 템포 프로포션의 게임을 통해 가장 쉽게 보인다.	해미올라는 흔히 영국 마드리갈과 초기 바로크의 춤곡에 나타난다. 미뉴에트를 춤춰보면 실제 음악이 3박으로 흐르는 것과는 달리 춤의 움직임을 2박으로 움직임을 볼 수 있다. 또한 브람스의 곡에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32. 리듬적 변화	이것은 직접적인 것으로부터 간접적인 움직임으로의 질적인 변화와 강세의 이동을 만들어낸다.	3/4의 ♩♩♩이 6/8의 ♩♩♩으로 변화할 때 변화하는 악센트와 흐름의 변화를 움직임을 통해 경험해본다.
33. 12음 나누기	12의 분할로의 그룹을 만들고 다시 그룹을 만드는 연습을 통해서, 가능한 박과 박자의 이동이 쉽게 학습되어진다.	♩를 기준으로 하여 1개, 2개, 12개의 순으로 묶어보면서 단위, 마디, 박의 성질의 변화를 경험해 본다.
34. 루바토	루바토의 사용은 길이와 박 그리고 리듬패턴을 다양화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왼손으로는 기본 4박을 지휘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원래 패턴의 음가를 약간씩 변형해서 표현해 본다.

위에서 설명되어진 리듬의 34가지 요소는 달크로즈가 나눈 리듬의 요소들을 아브람슨(Chosky&Abramson, 1986)이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 아브람슨은 부가리듬(additive rhythm)과 5가지의 리듬의 세계(Five Worlds of Rhythm)를 더한 36가지를 리듬의 요소로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리듬을 주된 요소로 하여 세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리듬이외의 다른 개념들, 예를 들면 화성, 형식, 셈여림, 빠르기 등의 개념 역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달크로즈의 대가인 아로노프와, 미드 등이 제시한 주요 개념들과 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실제의 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리듬외의 음악개념들

아로노프가 세분화한 음악의 개념들은 물론 리듬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아브람슨의 의견과 일치하지만 리듬 외의 다른 요소들--가락, 음색등--도 음악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

아로노프가 세분한 음악의 개념은 리듬, 아고직, 가락, 음색, 세기, 구성과 구조이다. 그 개념들의 세부분할과 움직임을 통한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리듬에서는 박, 박의 변화, 강세, 박자, 패턴, 쉼표, 다음절적 리듬을 구별하였고, 아고직에 빠르기와 변화하는 빠르기를, 강약에서 셈여림과, 변화하는 셈여림, 그리고 악센트를 구별하였다. 이 개념들은 리듬의 34원리에서 이미 다루어진 요소들이므로 그 외에 다루어지는 개념들만을 제시해 보자면 가락, 음색, 구성과 구조로 요약될 수 있다. 가락에서는 음고, 음의 방향, 가락의 모양(상행과 하행)을 다루었고, 음색에서는 다양한 음색을 탐구할 수 있는 활동들, 예를 들면 사람들만의 다양한 목소리, 말할 때와 노래할 때의 차이, 부드러운 소리와 끊어진 소리, 신체를 이용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소리의 탐색을 제시하였으며, 구성은 반복과 대조로, 구조는 단선과 조합으로 나타내었다.

미드에 의해서 제시된 음악개념과 연관된 활동은 <표 2>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된 활동들은 실제로 교실 내에서 적용하기에 적당하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아 볼 수 있다. 박이나 리듬을 따라 스

템을 할 때 지휘하는 활동, 공, 스카프, 풍선, 대나무 스틱 같은 도구들의 효율적인 이용, 짝과 함께하거나 작은 모둠을 만들어 하는 활동의 유용성 또한 미드에 의해 소개되어진다. 달크로즈의 원리를 실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적용한 미드의 음악개념의 세분과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미드의 음악개념과 활동

음악개념	개념의 적용과 지도내용
소리의 침묵 시작과 멈춤	허공에 대고 소리를 그리는 것 기계의 일부분처럼 움직이는 것 시작과 멈춤 노래하고, 움직이고 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
시간, 박, 그리고 빠르기	시계추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짝과 함께 시계추의 스윙을 만들어본다 뛰는 볼의 타이밍을 관찰하고 모방한다. 타이밍과 에너지의 게임을 한다.
슬레이즈 게임	조성 패턴 솔-미를 듣고 부른다 공간에서 미래도의 위치를 보인다 가락의 방향성을 듣는다. 더욱 난이도가 높은 예를 가지고 가락의 방향을 듣는다.
길이와 리듬	이야기에서 네 개의 기본적인 음가에 반응한다. 4분 음표와 8분음표사이의 관계를 신체적으로 느끼기 단순한 리듬적인 예들을 기보하기
강세	강세가 있거나 없는 음절에 손동작을 사용하기 단어의 강세가 있는 음절에 공을 튀기기 음악에서의 음절적인 강세에 듣고 공을 튕기기 마디의 처음박자를 제외한 강세를 찾아내기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강세, 박, 그리고 리듬을 표현하기
쉽표	음악에서의 침묵에 듣기와 반응하기 마디의 다른 박에 쉽표를 느끼기 4분 쉽표를 포함하는 리듬을 읽기
흔하지 않은 박자 균등하지 않은 박	박들의 묶음과 균등하지 않은 박을 느끼기 3박자에서는 스윙, 그리고 두박에서는 밀고-당기고 균등하지 않은 박으로 음계를 노래하기 익숙한 노래의 박자를 변화시키지 흔하지 않은 박으로 작곡해보기 5박안에서 두 성부의 리듬을 연습하기 다섯 박 안에서 노래를 해보기

지금까지 달크로즈 교수법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개념들과 적용 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개념들과 활동이 실제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 한다.

Ⅲ. 달크로즈 교수법의 실제 활용

1. 초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 모형

위에서 제시한 리듬, 빠르기, 셈여림 등의 개념들이 실제 움직임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적용되어질 때,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시간-공간-힘의 관계를 표현하여야 하며, 음악적으로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활동들이어야 한다. 또한, 이런 활동들은 움직임의 종류(예를 들면, 팔의 사용 후 다리의 사용, 어떤 특정한 근육의 지나친 사용을 피하는 것에 관한), 음악적인 문제(박 혹은 음역을 깨닫는, 새로운 개념 혹은 이미 소개된 개념을 탐색하는지에 관한), 개개인의 상상력(학생들이 단지 교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음악의 경험을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한)간의 균형을 이루게끔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 자신의 신체가 음악적인 악기가 되어져야 하며 이런 학습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자연스런 음악적인 수단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표 3>에서는 2장에서 언급된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원리와 개념들을 실제 수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달크로즈 교수-학습 계획안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계획안 모형과 이어서 제시될 학습지도안의 양식은 석문주가 *초등교사 교육을 위한 음악과 교육프로그램 개발(2004)*에서 제시한 양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달크로즈의 주요 3대 영역인 유리드믹스, 솔페이즈, 그리고 즉흥연주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중심 내용들을 학습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실제 내용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예

를 학습활동으로 제시하였다.

<표 3> 달크로즈 교수-학습 계획안 모형

영역	학습 내용	학습 활동
유리드믹스	신체탐구(신체의 연결) -시간(속도) -공간(방향, 단계) -힘(무게, 흐름) -시간+공간+힘 -비 이동 동작 -이동 동작 -유동성 있는 동작 -리듬의 34요소(쉬운 것부터 어려운,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순으로)	-악기로서의 신체훈련 -시간+공간+힘을 표현하는 연습 -따라 하기 -빨리 반응하기(시작과 멈춤) -메아리모방 -연속모방 -노래 게임, 포크 댄스, 동작을 가진 노래 -공의 사용, 다른 도구의 사용 -지휘 -리듬의 요소를 활용한 움직임
슬페이즈	-손동작(hand gesture) -복합코드(polychord) -2도 음정(dichords) -3도음정(trichords) -4도음정(tetrachords) -도-도 음계 (C-to-C scale)의 사용 -화성진행 -악보읽기(2선부터), -악보그리기	-c음의 인식 -음높이를 신체로서 나타내는 연습 -2도음정(도-레, 레-미, 미-파.)을 이용한 음계의 연습을 1작으로 단계적으로 발달 -유리드믹스에 적용된 따라 하기, 빨리 반응하기, 메아리 모방, 돌림모방을 슬페이즈에도 적용
즉흥연주	-말 리듬 짓기 -간단한 타악기로 즉흥연주 -간단한 동작으로 즉흥연주 -피아노로 즉흥연주	-간단한 단어부터 문장을 리듬적으로 만들기 -간단한 즉흥적인 손동작을 만든 단어나, 문장에 첨가해 보기 -점점 더 복잡한 동작으로, 예를 들면 발, 몸통, 몸 전체를 이용하여 표현해보기 -간단한 타악기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다른 느낌들을 피아노로 연주해보기

제시된 계획안 모형은 실제 수업지도안 작성 시 영역에 따른 학습 활동에 대한 수업지도안, 또는 학습 단계에 따른 수업지도안으로 다르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습활동을 실제 음악시간에 적용 시킬 때는 1) 누구를 가르치는가, 2) 목적이 무엇인가(음악적 목적), 그리고 3)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학습 지도안의 예

아브람슨은 달크로즈 교수법에 바탕을 둔 세 종류의 학습지도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종류는, 한가지의 리듬요소를 가진, 혹은 단순한 기술의 단계에서의 많은 경험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서 제시하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있다.

- 1) 한 가지 요소나 패턴을 사용하는 빨리 반응하기연습
- 2) 다섯 가지의 다른 빨리 반응하기연습과 같은 요소나 패턴에 다른 신체 악기와 다양한 이동적인 활동들을 사용하는 따라하기 연습
- 3) 한 가지 요소나 패턴의 읽기와 쓰기를 포함하는 칠판이나 플래시 카드의 작업
- 4) 한 가지 요소나 패턴을 가진 즉흥연주
- 5) 한 가지 요소나 패턴을 사용하는 메아리모방이나 댄스게임

두 번째 종류로는, 가르치는 과정은 레슨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만 많은 리듬요소들이 매우 단순한 단계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제시하는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한 가지 요소를 사용하는 빨리 반응하기연습 혹은 따라하기
- 2) 새로운 요소에 대한 빨리 반응하기연습 혹은 따라하기
- 3) 새로운 요소나 결합된 요소들에 대한 빨리 반응하기연습 또는 따라하기
- 4) 두 가지 새로운 요소들에 관한 빨리 반응하기연습 또는 따라하기

세 번째는 주제와 변주형식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순서에 의해 현재의 요소 혹은 더 많은 리듬요소들이 사용되는 것이다. 이것은 8가지의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 1) 집중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근육운동감각의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을 요소들이나 패턴들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요소나 패턴에 관한 빨리 반응하기 연습
- 2) 공부되어야 할 요소들과 패턴들을 가진 다양한 요소들(빠르기, 액센트, 강약, 프레이징)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서 혹은 반응의 유연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따라하기 게임
- 3) 기억을 자극하기 위한, 요소들이나 패턴의 변주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한, 그리고 용어, 자동적 반응, 단기 기억 회상을 발달시키기 위한 대치(Replacement) 게임
- 4) 음악적 형식의 지속을 생성하는 레슨의 요소들과 패턴을 사용하는 메아리 모방
- 5) 음악 기보, 읽기, 받아 적기와 요소들과 패턴의 즉흥을 위한 칠판의 사용
- 6) 다양한 요소들과 패턴의 지휘
- 7) 말, 타악기, 혹은 노래를 사용한 그룹 즉흥연주, 학생들에 의해 지휘되는 분리되어서 혹은 조합으로
- 8) 다양한 요소들과 패턴을 사용하는 캐논, 무용, 혹은 게임을 창조

모든 세 가지 지도안의 양식은 34가지의 리듬요소를 기본으로 하고 각 레슨은 신체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기술의 발달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써 동작, 타악기, 말, 노래, 그리고 전통적인 악기들을 사용하는 등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지도안이 한 가지 리듬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지도안은 다양한 리듬요소의 사용이라는 점이 비슷하지만 세 번째 지도안이 단순함에서 복잡함으로의 단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겔이 제시하는 지도안은 대략 신체적인 것과, 음악적인 두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신체적인 것은 신체를 음악적악기로서 준비하는 연습을 포함하는 부분으로써 자유로운 움직임과, 어린이들이 그들의 신체의 능력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도와주는 연습을 포함하는 신체훈련이 포함된다. 특히 이 신체훈련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긴장과 이완, 유연성, 통제, 즉각 반응, 관절의 독립성 등이다. 음악적인 부분은 음악의 요소에의 확실한 연결을 가진 연습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감상과 동기의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감상에서는 음악의 요소들--박과 변화하는 박, 음, ff 와 pp, 악센트와 마디, 길이, 음높이, 간단한 멜로디의 인식, 특징과 스타일--이 포함되며, 동기의 인식에서는 레가토와 스타카토 등의 아티큐레이션과 형식의 기본인 단순한 악구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제시된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아브람슨과 겔의 지도안을 한국의 초등학교 음악수업에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리듬의 요소들이 중심이 되는 아브람슨과 겔의 지도안과는 달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제재곡을 중심으로 필요한 개념들을 익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교사의 음악적인 훈련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달크로즈 수업에서는 교사가 피아노로 학생들의 움직임에 맞는 즉흥연주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한 학급의 학생 수, 필요한 공간의 확보 등의 문제점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달크로즈 교수법을 실제 학교음악 수업에 적용한 조셉(A. S. Joseph)의 지도안을 먼저 제시하고<표 4>,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지도안 <표 5>를 고안해 보려 한다.

<표 4> 달크로즈 교수법에 기초한 지도안의 예

단계	적용되는 활동	활동의 목적
시작하는 노래	-수업을 시작할 때 불리는 노래가 항상 있다. 노래가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전 시간에 배운 노래일 수도 있고, 이미 익숙한 노래일 수도 있다.	-유리드믹스를 통한 음악학습을 도와주는 분위기를 확립할 수 있다. -교사와 개개학생사이의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성악 적으로 소리를 탐색하는 시작하는 기점을 확립할 수 있다.

단계	적용되는 활동	활동의 목적
움직임 탐색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그들의 손을 감추는 다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다른 방법을 탐색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음악이 들리지 않을 때는 손을 숨기고, 음악이 들릴 때는 그들의 손가락을 움직여서 눈에 보이도록 가져오게 한다. -어린이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강약을 가지고 다양한 빠르기를 가진 음악을 즉흥 연주한다.	-움직임의 언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한다. -움직임을 위한 신체를 준비시킨다.
리듬적인 동작	-음악이 들릴 때 어린이들에게 앉아서 돌도록 하고, 음악이 멈추었을 때 빨리 멈추도록 한다. -어린이들에게 각각의 멈춤 후에 다른 방법으로 돌도록 하면서 연주한다. -팔의 상행하는 움직임을 가진 반주하는 소리를 상행하는 글리산도를 목소리로 나타낸다. -하행하는 글리산도로 역행한다. -글리산도를 사이렌소리와 비교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목소리의 방향을 따라서 소리를 모방하는 다른 방법을 신체적으로 표현하도록 장려하라. -피아노로 상행, 하행하는 글리산도를 연주한다. -어린이들이 소리의 방향을 따라서 그들의 신체를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음악과 동작과의 사이의 인식, 이해 그리고 시간-공간-에너지의 관계의 조절을 발달시키는 연습을 한다. -이런 관계를 제시하는 근육운동감각적인 탐색의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한다. -구조적이고 표현적인 음악의 요소들에 반응할 수 있게 한다. -사고가 행동사이의 빠른 연결을 발달시키게 한다. -음악적인 기억을 발달시킨다.
게임	-앞에 선행된 글리산도를 익힐 수 있는 게임을 선정한다. 개개인이 익힐 수도 있고 모둠을 만들어서 익힐 수도 있다.	-선행 경험된 개념들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 -다양한 게임의 요소들-빨리 반응하기, 메아리 모방, 연속 모방 등을 사용한다.
즉흥연주	-어린이들이 즉흥적으로 목소리로, 북으로, 혹은 신체움직임으로 글리산도를 표현하게 한다.	-구조적이고 표현적인 음악의 면을 가진 경험들이 성악적, 기악적 즉흥연주로 전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연습이다.
이완	-어린이들을 그들의 등을 마루에 대고 손가락, 팔, 머리, 다리, 발가락을 조용히 이완하게 한다. -모두 조용할 때, 그들의 이름이 속삭여지면 조용히 일어나도록 한다. 전이하는 과정으로 노래한다.	-긴장과 이완사이의 다른 근육적인 감각을 알아가는 활동이다.
콘서트	-글리산도를 포함하는 곡을 들려준다.	-어린이들이 음악적 문헌들과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마치는 노래	-수업이 끝날 때 불리는 노래가 항상 있다.	-어린이들에게 본 시간을 정리하고 다음시간을 예고한다.

<표 5>의 음악 수업지도안은 앞에서 다루어진 달크로즈의 주요 원리들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제재곡을 통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의 한 예를 보여준다. 지도안 작성 시 필요한 요건들은 지도안의 구체적인 목표 결정, 가장 적당한 경험의 선택, 단계별로 적당한 경험을 배열, 최고의 음악적인 예를 선택, 다양한 활동이나 음악의 반복,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의 제공 등이 있다.

<표 5> 달크로즈 교수법을 바탕으로 한 초등학교 음악 수업지도안

단원	방울꽃	차시	3/3	학년	4학년
수업목표	1) 쉼표의 개념을 익히고 신체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다. 2) 신체표현을 통하여 악구의 개념을 익힌다.				
단계	교수 학습 활동	준비물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 시작하는 노래 부르기 -평소에 익숙한 노래나, 전 시간에 배웠던 제재 곡을 부르면서 원을 만든다. (학생 수에 따라, 공간에 따라 모듈별로 원을 만들 수도 있고 커다란 원을 만들 수도 있다)	손북 피아노	-교사의 명령어는 박자에 맞추어서 음악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4박자일 경우, 하나-둘-시-작!,		
신체 탐색	* 악기로서의 신체를 준비 -제자리에서 손가락, 손, 팔, 팔꿈치, 어깨, 발, 다리, 머리, 그리고 엉덩이를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움직여본다.		3박자일 경우, 하나-시-작!		
리드믹한 움직임	* 시간+공간+에너지의 탐색 -학생들이 그들의 신체 부분들을 움직일 때 교사는 빠르게, 느리게, 크게, 작게, 강하게, 약하게 의 지시를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유도한다.				
	* 시작과 정지 -교사의 손 신호에 따라 학생들은 떠들다가 조용 하다를 반복한다.(빨리 반응하기) -제재 곡을 노래할 때 한마디는 소리 내어 노래하고, 그 다음 한마디는 마음속으로 노래한다. 이를 통해 내청이 훈련되어지며, 소리가 나지 않는 동안에도 박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쉼표와 악구 -교사가 연주하는 제재 곡에 맞춰서 걷는다. -음악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정지하고 박수를 친다.(쉼표의 연습)				

강화	-다시 음악이 시작되면 방향을 바꾸어서 걷는다. (교사는 4마디의 단위로 끊어서 연주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악구의 단위를 경험할 수 있다) * 비슷한 악구와 다른 악구의 구별 -학생들을 네 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 악구를 제 1모둠이 신체로 표현하고, 두 번째 악구는 제 2모듬이, 세 번째 악구는 제 3모듬이, 네 번째 악구는 제 4모듬이 표현하게 한다. 악구가 같으면 똑같은 움직임으로 다르면 변형된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정리	* 정리하는 노래 부르기 -다시 모이면서 정리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음시간을 예고한다.		

IV. 결 론

코다이나 오르프교수법이 일찍이 한국에 알려진 것에 비해 달크로즈 교수법이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달크로즈 교수법에 대한 관심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크로즈 교수법의 실제적인 적용에 관하여 다루어지는 자료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달크로즈 교수법의 주요 원리를 살펴본 후, 그 중심 개념인 리듬을 정의해보았다. 이어서 실제 달크로즈 수업에서 쓰이고 있는 중심 소재인 리듬의 34가지 요소를 정의,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움직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3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계획안 모형을 제시한 후, 이모형이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초등학교 수업 지도안 또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달크로즈 교수법의 원리를 포함한 초등학교 교수-학습 계획안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음악지도안을 계획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 고 문 헌

- 이경언(2002).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연구보고 RRC 2002-14-3).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Aronoff, F. W. (1969). *Music and young children*. New York: Turning Wheel Press.
- Bachmann, M. L. (1991). *Dalcroze today: An education through and into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aldwell, T. (1993). A Dalcroze perspective on skills for learning. *Music Educators Journal*, 79, 27-28.
- Choksy, L., Abramson, R. M., Gillespie, A. E., & Woods, D. (1986). *Teaching music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Jersey: Prentice-Hall.
- Dalcroze, E. Jacques (1921/1970). *Rhythm, music and education*. (Rubenstein, H.F. Trans.). London: The Dalcroze Society.
- Dalcroze, E. Jacques. (1924/1994). *Rhythmic solfege*. (Robert Abramson Trans.) New York: Music & Movement Press.
- Gell, H. (1997). *Heather Gell's lessons in music through movement for four to six year olds*. Nedlands, W.A: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Gell, H. (1996). *Heather Gell's thoughts on Dalcroze eurhythmics and music through movement*. Nedlands, W.A: University of Western Australia.
- George, M. G. & Mekwinski, E. (1992). *The art of movement: Creative activities for teaching and learning music*. Miami: Belwin Mills.
- Joseph, A. S. (1982). *A Dalcroze eurhythmics approach to music learning in kindergarten through rhythmic movement, ear-training, and improvis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rnegie-Mellon

University.

Lowndes, B. (1970). *Body awareness: Movement and drama in the primary school*, 69-76.

Mead, V. (1994). *Dalcroze eurhythmics in today's music classrooms*. New York: Schott.

Mead, V. (1996). More than mere movement: Dalcroze eurhythmics. *Music Educators Journal* , 82, 38-42

ABSTRACT

Principles and Adaptation of Rhythm in Dalcroze Methodology.

Jeong, Jae-eun

Emile Jaques-Dalcroze believed that our basic perception of musical rhythm is closely associated with motor sensations within the body. Through this concept, he formulated pedagogical ideas of education that combined rhythmic movement, ear training and improvis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principles of Dalcroze approach to music education, to investigate the materials in Dalcroze approach, and to suggest the learning program and the lesson plan in which Dalcroze approach is adapted to the music class in the elementary school.

Following the introductory chapter including principles and definition of terms used in Dalcroze approach, the study will be organized as follows: The 34 rhythmic elements and the adaptation of those to activities to the class will be followed in Chapter II. Adaptation of Dalcroze in teaching music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actual learning program and the sample lesson plan will be discussed in Chapter III. Conclusion will be followed as Chapter IV.

Keywords: Dalcroze, eurhythmics, rhythm, lesson plan